

“대포동 2호 발사 빨라질 수도”

정부 “무수단리 기지 움직임 3년전과 유사”

정부는 북한이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운반한 대포동 2호 추정 미사일의 발사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무수단리 기지에서 식별된 대포동 2호 추정 미사일은 2006년 7월 5일 시험발사 때 실패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시험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의 어느 부분을 개량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식별된 대포동 2호는 그때 발사된 미사일의 길이와 직경이 흡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발사 때는 미사일이 기지에 도착한 지 2개월 만에 발사됐지만 이번에는 미사일의 탄체와 발사체 등을 보강한 것으로 추정돼 당

시보다는 빠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발사 시기는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추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무수단리 기지로 운반한 대포동 2호를 발사대에 장착하지는 않았으며 기지 인근 동해 상에 선박, 항공기의 함해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발사가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번에 포착된 대포동 2호는 2006년에 발사됐던 미사일을 재조한 같은 미사일제작 공장에서 나왔고, 도착 지점이나 도착지에서의 활동이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미사일 동체와 추진체 조립, 발사대 설치, 연료 주입 등의 단계를 거쳐 2개월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액체연료를 주입할 때는 위험 요인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식통은 “무수단리 기지에서 미사일 준비 동향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은 없다”며 “2006년 미사일 발사 때와 매우 유사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도 폐지 시기상조... 권한이양 선행돼야”

행정체제 개편 릴레이 토론

현행 행정구역상 도(道)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기상조며, 개편에 앞서 중앙의 권한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앙의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가 폐지될 경우 신중양집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전북일보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5일 전주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개최된 ‘도(道) 역할 축소, 행정 효율화인가 신중양집권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도를 폐지하거나 역할을 축소할 경우 지방의 중앙 예측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일보와 전북일보 등 9개 지방 유력 일간지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대주제로 하는 연속 토론회의 일환이며, 전북지역 토론회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신철환 전북대 교수는 발제를



5일 전주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통해 “중앙에 대응할 만한 지방세력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신중양집권의 부활을 가져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특히 타 시·도를 넘나드는 시·군 통합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휘 전북대 정책기획관은 “3단계 행정체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폐지 대상이 도가 돼야 할지 시군이 돼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서 전북도 의원은 “도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행정 효율성만 이유로 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소장은 “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없애는 안된다”면서 “공공체 문화, 산업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힘,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임동욱기자 tujm@

中, 北 불법 행위 중단 대가 年 20억弗 지원

중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개입 혐의가 드러나 제재를 받았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후 북한에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매년 미화 20억달러 상당의 대북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티븐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발간한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식 경제개혁을 북한

에 장려하는 중국측 노력의 주요한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서) 안정과 개혁이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김정일에게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의 대북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매년 미화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봉 50만달러 넘지 마”

오바마 ‘구제금융 CEO’에 철퇴

미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연봉을 50만달러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받는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전문화된 인보너스를 받는데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들끓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회사 경영자의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는 주주들과 금융회사, 이들 금융회사에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CEO들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이이다. 그러한 보너스가 납세자들의 돈에 의해 주어질 때는 더욱 그렇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금같은 경제위기에 CEO들이 자신에게 그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나쁘고 잘못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월가의 CEO들이 지난해 연말 180억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 통합하면 재정 인센티브”

행안부, 내년부터 특별법 시행

정부와 정치권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목포·무안, 광양·민권 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 지자체 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통합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9년 정부 입법계획’에도 포함됐다.

법안은 현행 ‘도·농통합 시(市)설치 특별법’이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

된 통합 때에만 적용돼 시·시, 군·군, 구·구가 합칠 때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 골자다.

그리고 법안에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방안 등이 명시된다.

즉,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현행 제도에서 특별교부세나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기존 교부세액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정 기간 재정을 보전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힐러리 美 국무 19일 방한



힐러리 클린턴(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9~20일 방한한다.

외교 소식통은 5일 “힐러리 장관은 19일 입국해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릴 이번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집중 장담과 회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색창 ▶ "광주한빛고시학원" 방문환영

★★★ 7·9급 공무원 합격의 대세는 ★★★

"역시" 한빛고시학원

[복구청약 062) 234-0234 www.hanbitgosi.co.kr]

개강 ▶ 3월 2일

굿모닝 365
Goodmorning 365

1石2鳥

보양음료 숙취해소

간(肝)기능보호/피로(스트레스)감소

대한민국 1등 건강보양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18가지 임상검증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굿모닝365는 남녀노소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주)굿모닝365 광주·전남지사 062-267-7753
상담 및 구입문의 011-9612-8700

시·군별 대리점 모집 영업사원 모집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속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철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주목				▶아파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호남동	74/74	10억	4억4870만	대동/광주서구무수동	광양시	848/41	1억2000만	6780만	전원지역	문성동	근호	5층	42	1억800만	1억2320만
우산동	727/1432	67억2820만	30억1430만	3층/광주서구무수동	생촌동	51/63	1억7800만	1억2460만	2층/역사문화	근호동	근호	14층	24	9000만	6300만
오사동	281/231	7억4940만	4억1860만	우산동/3층/무수동	중동	38/47	8880만	4860만	2층/역사문화	월계동	근호	15층	34	1억900만	7350만
남양동	290/82	5억4700만	3억300만	대동/중동	중동	48/53	1억1820만	8680만	2층/역사문화	광명동	대신	8층	32	7500만	5250만
오사동	50/52	1억110만	900만	대동/중동	신기동	70/87	1억3950만	1억100만	2층/신기/초고	안곡동	삼호	2층	37	1억3800만	9680만
수기동	50/103	4억2580만	2억3840만	3층/광주서구무수동	문성동	24/28	8770만	4820만	2층/역사문화	학산동	대동/근	14층	24	4000만	2800만
일산동	362/994	41억4000만	16억9600만	3층/광주서구무수동	본촌동	89/35	8820만	4940만	2층/역사문화	내방동	해례	2층	32	1억1000만	7700만
지산동	151/213	5억400만	2억3800만	2층/역사문화	월산동	44/38	8150만	4565만	2층/월산/구역	우산동	동산	6층	24	5100만	3570만
					중동	42/48	9520만	5330만	2층/중동/초고	문성동	무등/차	15층	24	5500만	3850만
					중동	60/82	5000만	2810만	2층/중동/초고	문성동	무등/차	23층	32	9800만	6860만
					중동	103/64	3억3220만	1억8610만	역사문화/근						
					무등동	43/60	9650만	6780만	2층/중동/초고						
▶근린상가				▶다세대				▶토지							
소재지	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매곡동	11	6000만	2220만	1층/근린상가	중동	17.8	3000만	2100만	대동/역사문화	백운동	대지	379	7억4120만	5억1890만	역사문화/근
동산동	24.7	2억5000만	1억1280만	2층/근린상가	광양동	57.07	1억9000만	8960만	대동/역사문화	광양동	대지	692	2516만	1761만	역사문화/근
중동	80.7	2억2000만	2억4400만	2층/근린상가	월산동	13.1	2400만	1680만	광산/역사문화	내방동	대지	473	1437만	1000만	역사문화/근
동산동	183	4억5000만	1억2000만	3층/근린상가	문성동	14.8	4000만	2240만	2층/역사문화	중동	대지	44	3460만	2430만	역사문화/근
회양동	9.4	9400만	2895만	2층/근린상가	문성동	18	2400만	1680만	삼동/역사문화	중동	대지	71	3623만	2330만	역사문화/근
매곡동	48.9	2억6000만	7460만	2층/근린상가	중동	19.7	7000만	4980만	대동/역사문화	중동	대지	713	3355만	1500만	역사문화/근
신성동	29.8	1억5700만	7000만	2층/근린상가	중동	18.2	4300만	3010만	대동/역사문화	광양동	대지	720	2712만	1900만	역사문화/근
▶근린주택				▶오피스텔				▶공공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신기동	62/136	4억7000만	3억2900만	2층/역사문화	신촌동	6.8	2450만	1372만	제112층	문성동	155/136	3억2400만	2억8680만	소동/근린상가	
중동	76/85	3억2100만	2억2470만	2층/역사문화	차량동	5.4	4억2000만	2억3520만	로터/역사문화	문성동	1248/641	7억766만	3억1700만	동동/근린상가	
중동	69/58	2억	1억4100만	2층/역사문화	수기동	9.1	4300만	1541만	제113층	용동	294/206	4억4000만	2억8680만	동동/근린상가	
주산동	43/42	2억3830만	1억8677만	2층/역사문화	차량동	11.6	7500만	3380만	구역/제114층	중동	1990/699	14억8820만	5억8880만	근린상가/근	
신성동	344/184	4억1800만	1억89800만	3층/역사문화	월산동	13.7	8600만	3090만	동동/18층	용동	634/785	11억5000만	5억1560만	대동/역사문화	